



[라이프] 식품업계 설 선물 대전 "따뜻함 전해요" L1



Life

[라이프] CJ푸드빌 '더플레이스' 특화전략 주요 L2



ESG경영 심고, 친환경 채권 물 주고 '녹색금융'으로 모두가 그린 내일을 키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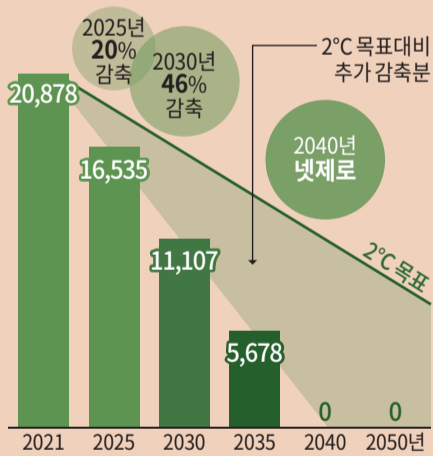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DGB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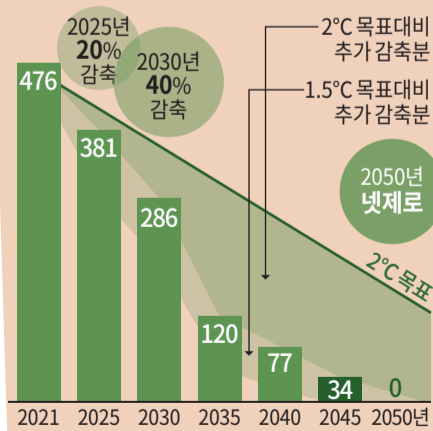
DGB금융그룹은 최근 금융업계의 최대 화두인 ESG경영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지난 2006년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지속가능경영 선포식을 열고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했다. 이후 본격적인 ESG 경영에 뛰어 들면서 현재는 지역사회까지 ESG 경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자체배출량 이행경로 단위: tCO2e



금융배출량 이행경로 단위: tCO2e



① DGB금융 대구경북 ESG 추진협의체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② DGB금융그룹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보고서상(KRCA)' 금융부문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황병우 DGB금융 그룹지속가능경영총괄 전무(왼쪽)가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과 포즈를 취했다.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KOREAN SUSTAINABILITY CONFERENCE 2022

◆ 글로벌 ESG 선구자의 길

9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국내 최초로 사회책임투자펀드를 판매했다. 이어 유엔 글로벌콤팩트,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등에도 가입해 선도적인 ESG 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김태오 회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 글로벌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DGB금융의 ESG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먼저 글로벌 3대 지표로 불리는 'MSCI (모건스탠리) ESG 평가'에서 국내 금융권 최고 수준인 'AA등급'을 획득했다. 또 미(美) 커뮤니케이션 연맹이 주관하는 'LA CP 2022 스포트라이트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국내에서 DGB금융의 ESG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국내에서는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유엔글로벌콤팩트 선도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며 이어 지속가능성보고서상을 12회 수상하는 기록을 경신했다.

◆ 전 계열사와 '친환경 금융' 앞장

특히 DGB금융은 전 계열사가 친환경 금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ESG 채권 발행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사업 투자 ▲기업 지원 확대 등 친환경 금융 활동을 바탕으로 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먼저 DGB대구은행은 대구시와 손잡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대출상품인 'DGB론(LOAN)'을 저금리로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출시한 특별대출상품인 'ESG 그로업(Grow UP)' 역시 환경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환경특화점포인 'DGB사이버그린지점'을 운영하며 친환경 금융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DGB생명과 하이투자증권은 ESG 금융 기준을 수립하고 ESG 채권 및 대체투자 등을 통해 녹색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부터 배

금융업계 ESG경영 선두주자

국내 최초 사회책임투자펀드 판매

전기차 보급 활성화 등 친환경 금융 지역 중소기업 ESG 경영 안착 도와

지난해, 전 계열사 탈석탄금융 선언 탄소 배출 2050년까지 100% 감축

출권 거래에 참여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안정적 매매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DGB캐피탈은 ESG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폐기물 자원화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 하이투자파트너스는 그룹의 ESG 경영 전략에 따라 환경·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발굴·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 "지역 내 ESG 확산 역할"

DGB금융그룹은 지역사회에도 ESG경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DGB금융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지역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해 맞손을 잡고 지역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ESG 경영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경북지역 제조 기업인 삼우기업, 와이제이링크, 삼보모터스 등과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SG 경영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 전문 ESG 컨설팅 업체와 함께 중소기업 ESG 수준을 진단 평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아울러 DGB금융은 공공기관과의 ESG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대구경북 ESG 추진 협의체'를 출범했다. 하반기에는 서울대 지속가능경영학회를 초빙해 세 차례

세미나를 열고 지역 내 ESG 관련 논의를 넓혀가겠다는 계획을 도모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이 ESG 경영 관련 정보를 얻을 곳이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지역 내 ESG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공공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탄소중립시대, 탈석탄 금융 선언

DGB금융은 앞으로도 ESG경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지방금융지주 최초로 전 계열사가 탈석탄금융을 선언했다.

지난 2010년부터 DGB금융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외부 검증을 거쳐 현재까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공시하고 있다. 또 2018년에는 TC 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가입을 시작으로 SBTi(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에 서명했다. 이어 올해는 SBTi로부터 탄소 감축 목표를 승인받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DGB금융은 탄소배출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내부 탄소 배출량은 2025년까지 20%, 2030년까지 46% 감축할 계획이며,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량을 각각 2040년, 2050년까지 100% 줄인다는 목표다.

DGB금융 관계자는 "여신 및 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등 금융자산 탄소배출량을 산정했으며, 위험 노출 정도가 높은 중점관리 산업에 대해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배출량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김민재, 부상 회복 오래 걸릴듯...경기 중 교체 /사진 뉴시스
▲몸값 오르는 조규성...“셀틱, 이적료 45억원 제시”

▲뉴캐슬·애스턴 빌라 등 4팀 이강인에 관심...공식 제안은 아직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주세종, K리그 1 대전 완전 이적



▲프로야구 KIA 나성범, LG전자 초청으로 CES 2023 참관
▲김주형, PGA 새해 첫 대회 5위...이경훈 7위-임성재 13위 /사진 뉴시스